

나의 삶 나의 하나님

내 딸을 키워 주신 하나님

삼남매를 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정녕 하늘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저는 한눈 팔 사이 없이 열심히 열심히 일해가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큰딸과 그 아래 두 사내 아이. 큰딸은 남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대학을 포기했고 남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결혼도 미루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슬아슬한 고비도 많았고 위태로운 낭떨어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번 한번을 기도에 매달려가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15년. 막내가 대학에 입학한 뒤에 군대에 들어갈 무렵 큰딸은 좋은 신랑감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트집이 되거나 않을까. 학력 때문에 탓이 되거나 않을까 마음이 졸였지만 사위 될 사람은 딸의 인품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귀하게 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던지요.

결혼식을 어떻게 끝내었는지, 딸 내외를 신혼 여행지로 떠나 보낸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야 갑자기 무엇이 허물어진 듯 허전하고 허탈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마치도 의지까지 없는 사람처럼 허망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밤중에 큰아들이 어미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떠나면서 오늘밤에 이것을 어머니께 드리라고 했어요" 아들이 내어놓은 것은 은행통장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저의 월급봉투를 고스란히 내어놓고 그때마다 어머니께 용돈을 타갔습니다. 그렇게 몇 푼 받은 용돈을 아끼고 아껴가며 십여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치신 어머니. 단 한번도 당신 자신을 돌아보는 일 없이 우리를 위하여 생애를 다 바치신 어머니. 늘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사랑을 쌓아 놓듯이 모은 돈입니다. 필요하신 일에 마음 놓고 쓰세요, 박 서방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 했으니 너무 외로와 하시지 마시고요....." 통장 안에 들어있던 딸아이의 편지를 읽으며 그만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장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와 보라는 전갈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여 달려가 보니 "따님이 어머니를 위하여 부탁해 놓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한 세트였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는동안에 화장품을 살 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딸 아이 눈에 내가 그렇게 늙어 보였을까. 화장품을 안고 돌아오며, 이제는 사위의 눈도 있고 하니 정말 모습을 단정하게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뜻밖에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나기에 나가 보니 꽃집에서 배달을 왔다며 꽃 빛도 아름다운 아잘리아 화분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내 딸이! 나는 화분을 가슴에 안고 너무도 가슴이 벅차서 또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아, 사랑스러운 내 딸... 심지 깊은 내 딸아 부디 행복하iera! 하루를 그렇게 감동 속에서 지낸 다음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한약방이라면서 느닷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개 아무개가 따님이시지요? 며칠 전에 어머님 보약을 지어놓으

(광고면으로 계속)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갈보리 교인"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3권 7호	기초성경공부이수.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2월25일
☎269-8677/021-292-1639. ☐ Cnr of Khyber Pass Rd & Burleigh St		

가슴에 새기는 말

사탄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1. 사단은 떠들썩하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울무는 포착할 수 없을 만큼 교활하며 놀라운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사단이 빛의 전달자인 것처럼 위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 사단이 우리를 눈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죄를 범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 시기, 원한, 증오, 질투가 당신 속에 있습니까? 사단의 덫입니다.
3.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사단의 덫입니다.
4. 누군가를 비난하고 남을 자주 탓하십니까? 사단의 덫입니다. 당신의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지도층에 대해 비판적이며 심판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단의 덫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사야 55:12) 말씀하고 계십니다.
6. 불만 때문에 헌신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자리 등...) 당신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에 있을 때 마귀는 당신을 실족시켜 그곳을 떠나게 하려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어려운 갈등 속에서도 당신이 요동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면 당신은 마귀의 음모를 깨부수게 될 것입니다.
7. 당신 자신을 현대판 예레미야로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덫입니다. 자신이 박해받은 성인이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다 여김으로 위안을 얻으며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은 가인의 마음입니다

-주부편지 중에서-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1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Hymn	6(시편 15)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92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송정섭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 6:9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하나님나라가 임하소서"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543 장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주일예배 12:00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일새벽기도: 6:00

<2,3월 예배 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time봉사	안내:김교섭
2/25	송정섭	이선우	안원희,손길숙	이경석,한은영	김교섭,정희자
3/4	신경화	송정섭	이선우,조순정	이정수,김영태	최윤희,송정섭
11	신선숙	신경화	이영권,김영태	이선우,조순정	최재학,정희자
18	이경석	박일영	최윤희,송정섭	최재학,노은숙	박일영,임혜자
25	이선우	노은숙	한 건	최윤희,송정섭	최윤희,송정섭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교 회 소 식

-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지난주:사사기 2명. 시편(1,2) 1명. 시편(4)2명
- 2001년 교회목표 "주일중심에서 매일중심의 신앙"-'경건의 시간' 생활화
*실천사항:<매일> "7분 경건의시간-기도.성경.찬송"
- 등록교인 기초성경공부(3주차)가 계속됩니다
<시간>저녁 7:30 <장소> 김교섭 장로 가정
- 사순절: 28일(재의 수요일)부터 40일간(주일제외) 부활절을 기다리며 사순절을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제직회: 다음주일에 갖습니다.
- 갈보리 학생부:1)예배직후 본당에서 모임(1:45분까지)
2)토요일 야외모임:3월 3일 11시 Milford Beach
- 지난 주일 등록하셨습니다.
*김종건,노은숙 집사(지은). 479-7274 ☎7 Sidmouth st. Mairangibay
*신지수 집사 482-1009 ☎14/4 Kauri Rd. Birkenhead
*박경래,최정숙 집사.(박영태 집사 부모). 83/1 Ambrico Pl. NewLynn
*박영태,정의령 집사 813-0818 ☎37 Cobham Cres. Kelston
*박용태,박정자 집사 379-3446 ☎ 205-215 7H Hobson St. City
- 기도와 심방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전해주십시오.
*박경래 성도:자택
*박용태 집사
- 교우소식.1)정의령 집사/ 호주방문차 출국하여 금주중 귀국.
2)김명현. 손가락 문에 찌였어요. 오늘 수술.기도해주세요

라 하면서 오늘 날짜로 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지금 배달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뿐이었습니다. 기나긴 터널을 외롭게 외롭게 견뎌 온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가르면서 제가 드린 기도는 언제나 한가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비를 잃은 내 자식들에게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주셨고 그 응답을 이렇게 보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한 이 땅의 상급이 이러할 때에야, 믿음을 지킨 하늘나라의 상급은 어떠하겠습니까. 미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